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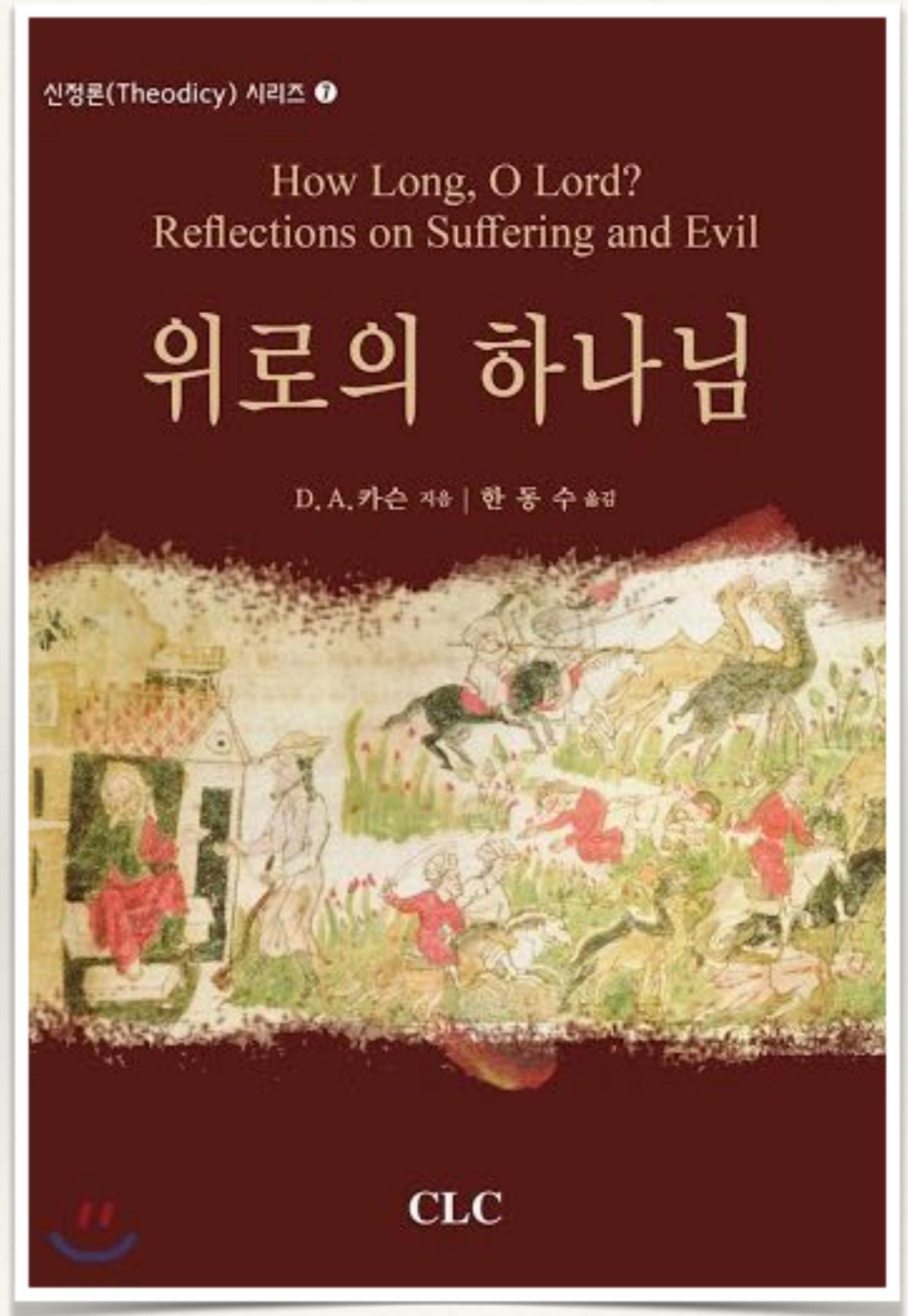
2020년 1학기
연세대학교회
주일성서연구

정대경 목시
(명지대학교 교목)

성서연구의 주제

악과 고통의 문제

- ❖ "죄의 대가"
- ❖ "사회적인 악과 가난"
- ❖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 ❖ "질병, 죽음, 사별"
- ❖ "종말론과 고난"
- ❖ "옫: 신비와 믿음"
- ❖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 ❖ "하나님 섭리의 신비와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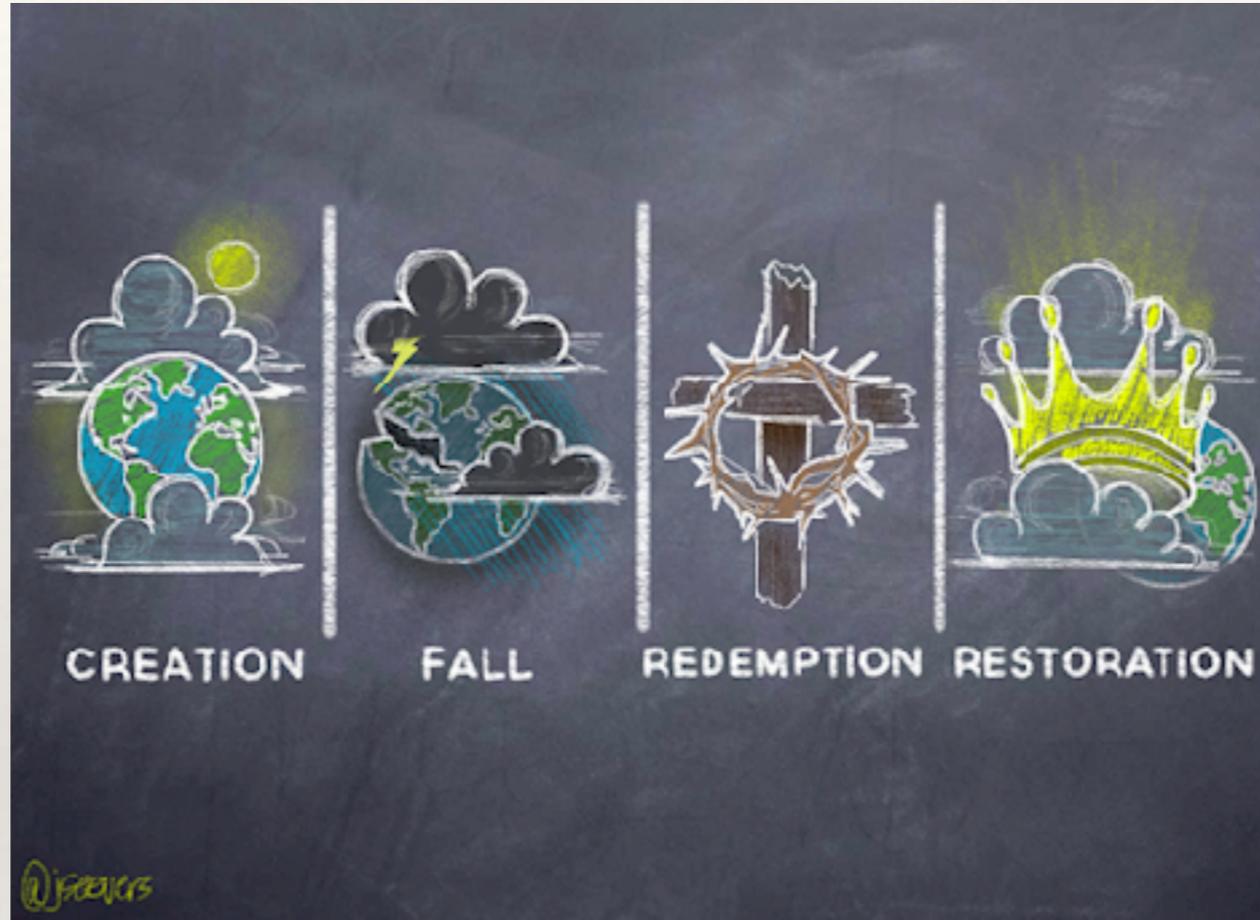


6주차 주제

“죽음”

1.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2. 죽음을 통해 우리는 피조물됨을 인식한다.
3.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

들어가며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 앞으로 볼 주제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
-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점

1.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2.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성

A. 피조물의 타락과 하나님의 선하심

- 하나님 부재의 공간적 존재인 피조세계: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
& 하나님 부재의 공간으로서의 피조공간 (e.g. 시 74: 12-17, 창 1:1)
- 하나님의 선하심: 창 15:16, 신 32:4, 욥 4:2, 렘 2:4, 요1 1:15, 계 6:10...
- 그러므로 악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1.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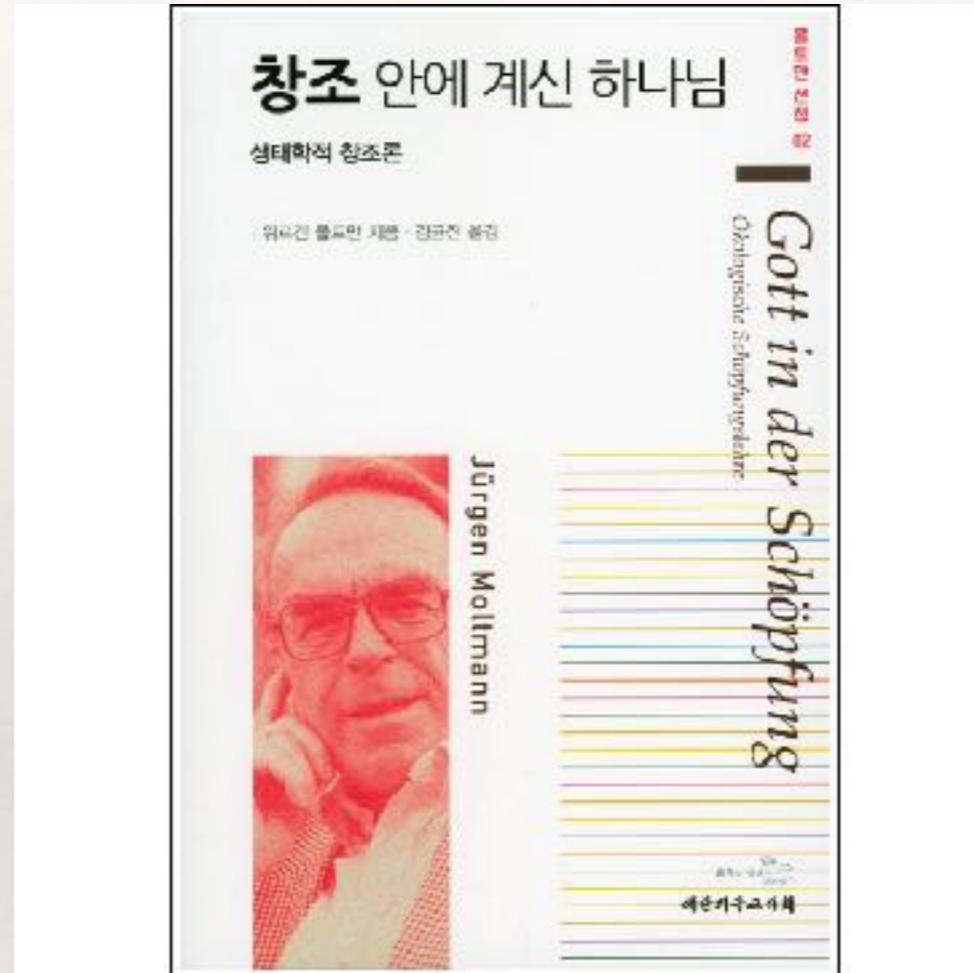
- 하나님은 죽음을 반대한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 25-28.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피조물과의 화해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

1.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 하나님 부재의 공간, 그리고 그 부재의 최고봉인 사망을 정복하고, 피조물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하나님은 끝내 이 죽음을 극복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2. 죽음을 통해 우리의 피조물됨,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신앙의 근본적인 인식은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식하는 것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 3:4-5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롬 1:18-23

2. 죽음을 통해 우리의 피조물됨,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관계란, 죽음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다. 죽음에는 메시지가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과 말씀을 본다.”

Helmut Thielicke, *Living with Death*,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83), 125.

트랜스휴머니즘과 죽음, <https://www.youtube.com/watch?v=fpxddOJTcHA>

2. 죽음을 통해 우리의 피조물됨,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죽음의 위협을 통해, 혹은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전능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나사로의 죽음(요 11장) & 히스기야의 기도(왕하 20장)

3.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죽음을 받아들이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롬 6:3-5, 8-9.

“그 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짓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계 21:3-4

3.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죽음을 받아들이기.

- 하나님의 죽음에 참여하심, 공감하심, 아파하심을 기억하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단지 무표정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라고 주장하는 식의 스토아주의가 아니다.” 카슨, 19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히 4:15

6주차 성서연구를 나가며

묵상을 위한 질문과 나눔

- “죽음”은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 “죽음”은 그것 자체로 악이지만, 이러한 악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데 신앙이 주었던 힘이나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봅시다.